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제1차 공식협상 개최

- 디지털, 핵심광물, 공급망 등 新통상 분야 중심 협상 본격 개시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6.8(월)부터 6.12(금)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아세안측 알파나 로이(Alpana Roy)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을 각각 수석 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이후, 올해 4월 개최된 제1차 공동위원회에서 2026년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협상을 추진해가기로 하였다.

이번 제1차 공식협상에서는 디지털, 핵심광물, 공급망 등 13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제2차 한-아세안 FTA 공동위원회를 함께 개최하여 각 분과별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공동위 차원에서 협상 방향도 논의한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이번 제1차 공식협상을 계기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라며, “디지털, 핵심광물, 공급망 등 우리 기업의 미래 경쟁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부서	통상협정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도엽 (044-203-5750)
	통상협정이행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영 (044-203-5756)

1. 추진 경과

- 한-아세안 정상회의('22) 계기 우리측이 FTA 개선 의지 표명
 - * “FTA에 디지털 협력도 포함해 업그레이드하겠다”(한-아세안 연대 구상, '22.11)
- '22~'25.10월 아세안과 FTA 개선 공동연구* 및 개선 분야 협의 진행
 - * 공동연구 결과, 양측간 디지털·공급망·핵심광물 등 신통상규범 강화 필요 제언
- 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25.4~6), 공청회 개최(9.12) 및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10.14) 완료
- 한-아세안 정상회의 ('25.10) 계기, 개선 협상 개시에 합의

2. 협상 목표

◆ AI, 전기차 등 미래 핵심 산업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핵심광물, 공급망 등 신통상규범 중심 협상 역량 집중

- (디지털) 높은 수준의 디지털경제 규범 도입을 통해 아세안과 디지털 무역·투자 기반(디지털 고속도로) 구축
- (핵심광물) 첨단산업 발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희토류), 인니(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교역·투자 원활화 기반 구축
- (공급망) 공급망 교란 대응 협력, 공급망 다변화 등 경제 안보 측면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심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 마련
- (기타) 그린경제, 지재권, 비관세조치 등 나머지 규범 분야도 우리 기업 실익 관점에서 협상 추진